

나는 회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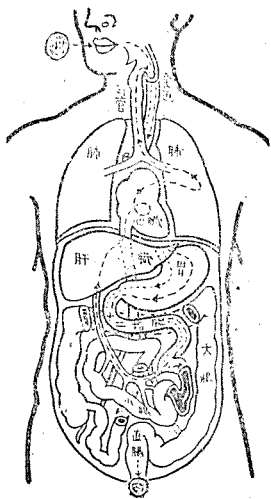


李 純 炯

우리가 알속에서 사는 동안은
알속세계 그대로입니다. 그러
나 보통 2~3주후면 깨어나요.

1

우리 회충이 사람몸에 들어가려면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충분히 자라서 감염형유충(感染型幼虫)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 회충이 자란다는 것은 수정된 알세포가 분열을 시작하여 벌레의 모양을 갖춘 다음에 두번이나 탈피(脫皮)를 하여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경과는 다 알껍질을 뒤집어 쓴채 지나게 됩니다. 얼마나 걸리느냐구요? 한말로 말씀 드리자면 일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바깥 세계의 환경 즉 온도, 습도, 수소이온농도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의 한여름 같은 조건에서는 평균 1주일이면 준비가 끝납니다. 보통 2~3주정도, 넉넉잡아 한달이면 다 자라게 되는데 우리 회충들로 보아서는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때지요.



더구나 겨울철이면 온도가 낮아 잘 자라지도 못해 12월 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아주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는 셈이 됩니다. 그뿐인가요?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러가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죠. 잘못해서 직접 햇볕을 쬐인다든가, 건조한다든가, 썩는다든가 몸씨 추워서 얼어버리든지 하면 세상에 태어난 보람도 없이 죽어버리는수가 많

지요. 사실 우리 회충들이 한국에서 극성을 부린다고 야단하시지만 우리들로서는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고 사람몸속서 성공적으로 붙어살게 되는 일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요행에 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회충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2 이렇게 오랜동안 기다리다가 사람의 입을 통해 배 속에 들어가면 곧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이지장에 도달하면 우리는 비로서 알껍질을 벗게 되는데, 옛날에는 사람의 이자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효소가 알껍질을 녹인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사람의 창자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 우리 회충들이 알껍질을 녹이는 물질을 낸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약 두시간이면 알에서 나오죠.

어찌되었건 알에서 나온 우리 회충들은 다시 먼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창자의 벽을 뚫고 들어가 거기에 있는 아주 작은 입파관이나 정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핏줄을 따라 흘러가 간을 지나고 심장을 거쳐서 허파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다시 두번 탈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핏줄을 터뜨리고 폐포속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겨울에는 잘 자라지 못하고 이듬해 4월까지 지루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다가 햇볕을 쬐거나 건조하면 생명에 위협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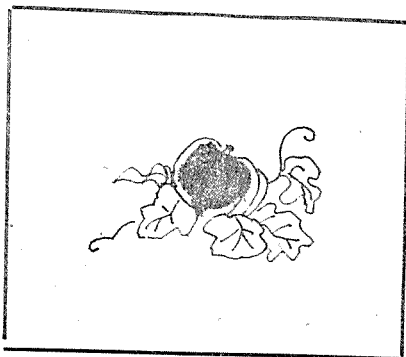
뚝고 임파관이나 정맥에 들어가 긴 여행을 떠나죠.
 로 갑니다. 거기서 알껍질을 벗고 작은 창자 벽을
 우리들이 사람 뱃속에 들어가면 먼저 십이지장으로

때는 우리회충들이 자라서 그 굵기가 실핏줄보다 훨씬 굵아졌기 때문이겠지요. 폐포로 나온 우리 회충들은 작은 기관지에서 큰 기관지로, 다시 기관과 후두를 지나 식도로 내려와 처음과 같이 위를 경유하여 작은 창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더욱 자라서 어른이 되면 회충부부(蛔虫夫婦)가 같이 살게 되고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들어간지 약 두달이 면 암컷들은 알을 낳기 시작하고 약 12내지 18개월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통이지요.

3 우리 회충이 사람몸에 들어가면 사람에게 좋지 않은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회충도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본의 아닌 여러가지 폐를 끼치게 되나 봅니다. 우리 회충들은 어디까지나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너무 극성을 부려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속에 사는 우리 회충들의 운명도 끝장이 나버리고 만иж요. 그래서 우리 회충들은 평소에 매우 얌전하고 한사람에게 5,000마리 이상 있을 때도 아무일 없이 지나는 일도 많답니다. 하여간 우리 회충들은 사람들이 되도록 맛이 있는 것을 많이 먹고 다른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먹여 살리고 보호해주는 장본인

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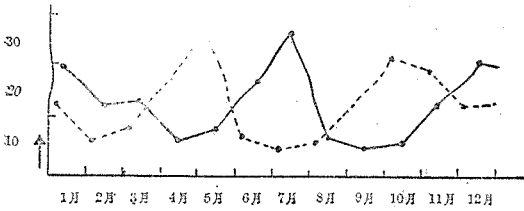
4 우리회충이 어렸을때 애벌레로서 사람의 허파를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제일 먼저 병을 일으키게 되지요. 사람몸에 한두마리가 아니라 아주 여럿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허파의 실핏줄과 폐포도 많이 터지고, 여기에서 흘러나오



는 피와 진물이 폐포를 채우게 되며, 사람몸에서 우리 회충의 침입을 방어하고자 동원되는 여러종류의 세포가 모여들어 이른바 “회충성 폐염”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때에는 40°C 정도의 높은 열이 나고 경련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이 오며, 가래가 나올때도 있고, 때로 두통·오한등을 볼수 있지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때에는 간도 커집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감염 1~5일에 나타나고 6~7일후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폐염이 계속되는 동안 가래검사를 하면 가래에 섞여 나오는 우리 회충의 애벌레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현미경으로 보아야할 정도로 작지요. 이 폐염증상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른보다는 특히 어린이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어느 학자는 이 폐염이 회충의 기계적 원인이외도 살아있는, 또는 죽은 애벌레에서 연유하는 어떤 대사물질에 대한 “알러지성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런 폐염증상은 첫번째 감염에서 보다 두번 세번 반복해서 우리 회충들이 침입할때 더 심해 되지요.

5 그다음에 일으키는 병이 여러분도 잘 아시고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장강내 회충증”으로 우리 회충이 사람의 창자에 있으면서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사람에 10~20마리정도가 같이 살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그 이상이 될때에도 우리가 암전히 있으면 사람들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련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끔 배가 아픈것을 느끼는 일이 많지요. 우리 회충이 한국에서 한창 창궐하던 시절에는 배가 아프면 무조건 “희배”라고 할 정도 였으니까요. 우리 회충이 있을 때 배가 아픈 원인을 학자들은 우리 회충이 배출하는 배설물의 독작용 때문이라고도 또 우리 회충이 입술로 창자벽을 물기 때문이라고도 합니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구요. 만약 사람이 죽으면 우리도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평소에는 암전해요.



계절별 감염 곡선

이강 열차는 7월·12월·1월에 총란 검출이 많다(점은 선).
감염후 70일에 알을 까기 때문에 4월·9월·10월에 강열된
사람이 많다(점선).

가 아프면 우리가 입을 슬로 창자 벽을 물어뜯기 때문이라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허파를 지나다가 핏줄을 터뜨리는 수
있죠. 그것을 「회충성 폐염」이라나요. 사람들은 배가

다만 양자가 합하여 복통을 일으키지 않나 합니다. 배가 아픈 이외에 가끔 위경련, 식욕감퇴, 체중감소,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이런 증상들은 우리 회충이 몇 마리나 창자속에 살고 있는

나에 따라 적으면 잘 안 나타나고 많이 기생할 때는 심해지지요. 많이 기생하는 어린이에서는 영양장애가 나타납니다. 보통 회충이 20마리 살고 있을 때는 하루에 2.8g의 탄수화물과 0.7g의 단백질을 사람으로 부터 뺏어 먹는다고 하기도 하고 또 26마리가 기생할 때 사람이 하루에 35—50g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하면 4g의 단백질을 우리 회충들이 먹어치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람이 먹는 단백질의 10%를 우리 회충이 먹어치운다는 결론이니, 이것이 26마리가 아니고 260마리나 2,600마리가 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에서는 자라나는 것이 늦어지고, 마르고 배만 튀어나오게 되며, 때로 설사와 혈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입맛이 이상해져서 흙이나 숯같은 것을 집어먹는 토식증(土食症)이 있는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창충”이라고 부른 증상중에도 아마 회충에 의한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이렇게 장염(腸炎)이 되는 외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구역질과 구토가 있으며, 경련성 기침, 정신적 불안, 두드러기, 피부나 코구멍이 가려운 증상들이 간간히 나타납니다. 또 간질이나 뇌막염같은 증상이 있고, 시력장애가 오기도 하며, 야맹증, 잠고매와 헛소리, 환각등의 신경증상이 오며, 공연히 눈이 부셔서 눈을 잘 못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모든 증상은 우리 회충이 내는 독소에 의한다고 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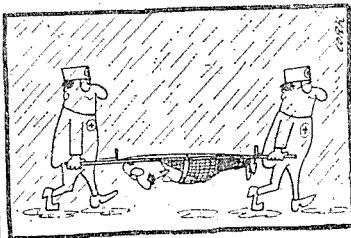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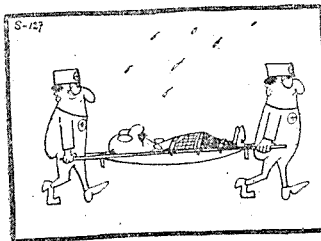
다. 그래서 구충제를 먹고 우리 회충을 장속에서 모두 몰아내면 이런 증상들이 없어진다 하니 우리 회충은 모르고 지내나 우리 회충이 내는 대사산물(代謝産物)이 독하기는 독한 모양입니다.

어떤이들은 우리 회충이 학령기의 아동에게 많이 감염되었을 때는 신체적 성장 발육이외에도 정신적발육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회충에 걸린 학생들이 회충에 걸리지 않은 학생들보다 지능지수도 낮으며, 따라서 공부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마는 정말인지 어쩐지는 더 두고 보아야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권배감을 갖게되니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있겠지요.

6

우리 회충이 창자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 회충을 자극하면 우리들은 쉽게 성을 냅니다. 그런 원인으로서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약, 예를 들면 사염화탄소 같은 것을 십이지장충 치료에 사용할때 우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뭉치고 얽히고 하여 장폐쇄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하며, 창자를 뚫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사람이 열이 오르면 우리 회충은 뜨거워서 싫기 때문에 어디 시원한 곳이 없나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회충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열병에 걸리지 마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계속)

<필자=서울의대 기생충학 조교수>



우리들 26마리가 같이 한사람 뱃속에서 살때 하루에 빼앗아 먹는 단백질이 10%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그러면 만약 2백 60마리가 산다면 어찌 되겠어요? 무서우시죠? 그래서 어떤아이들은 숯과 흙을 먹는다던가요?